요하이 벤클러 지음, 최은창 옮김, 네트워크의 부,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. 커뮤니케이션 북스, 2015

제 1장. 서론: 기회와 도전의 순간 (pp. 1~45)

- 네트워크 정보환경의 변화: 비 시장적, 비 전유적 생산의 역할 증대. 독자적 개인 또는 느슨하거나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들의 광범위한 협업을 통해 가능.
- 새로운 개인적 자유, 더 민주적인 참여 플랫폼, 더 비판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문화
- 이에따라 디지털 환경의 제도적 생태를 만들고자하는 전투가 진행중임.

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창발

- 두가지 전환: 정보생산, 문화생산, 상징조작에 집중된 경제로의 이동,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으로의 이동> 사회적 생산과 교환을 확대
- 네트워크 정보 경제의 시작-분산된 형태의 비시장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협력, 공조 활동. 컴퓨터 등의 개인적 정보생산, 커뮤니케이션의 물질적 요건 갖춤, 창의성 발현
- 정보생산시스템의 특성: 1) 비전유적 전략, 2) 네트워크에 연결된 개인들의 공조, 3) 대규모 협업활동 증가
- 비시장 협업으로 수행되는 정보 프로젝트의 창의적 참가자들은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며, 그 결과물을 개방적으로 공유한다는 윤리적 원칙 따름.
- 그렇다면 비시장 생산의 실현가능성과 실행이란?

네트워크 정보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사회

- 개선된 자율성:
  - 개인들이 스스로 더 많은 일을 하도록, 느슨한 공통성 속에서 타인들과 함께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, 시장 외부의 공식 조직에서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하도록 개인의 역량 개선.
  - 자율성은 이러한 환경에서 철학적 개념이 아닌 체험과 같은 실질적 개념으로 탈바꿈

- 민주주의: 네트워크 공론장
  - 개인들의 자유에 기반한 공론장이 만들어짐
  - 정보 과부하나 충분한 탈 중심화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으나, 네트워크 정보경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공론장의 구조 개선 및 정보 필터링 기능은 이러한 비판이 과도한 걱정임을 보이고 있음.
  - 정보 흐름의 패턴은 국지적 클러스터 들에서 상호 검토되어 검증되는 과정들을 통해 큰 네트워크로 옮겨가는 상당히 질서정연한 모습

- 정의와 인류개발 : 정의와 인류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기본요소를 비전유적 재화로 공급 가

능. 기회의 형평성 개선. 혁신생태계의 징후 목격(공개적 기금 조성, 전통적 비영리단체, 새로운 동료생산의 형태 통합)

- 비판 문화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적 관계들: 더 투명하고 유연한 문화 제공. 더 민주적이고 자기성찰적이며 참여적인 문화의 성향. 이러한 핵시에 신장된 개인들의 역량이 있다.

네가지 방법론에 대한 설명

- 인간사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: 기술결정론 vs. 테크놀로지의 '어포던스(affordance)' 즉, 테크놀로지는 인간관계, 행동, 조직체들이 목표를 수월하게 추구할수도 있지만,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. 즉, 사회에 미치는 역할은 상대적이다.
- 경제학적 분석의 역할과 방법론적 개인주의: 네트워크는 이전보다 느슨하고 유연한 관계로 더 나은 공조와 협력 가능. 이러한 비 시장영역이 어떻게 탈 중심화의 가능성을 정착시킬 것인가.
-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경제적 구조: 인류와 개인에게 관심을 두고 이들의 정치, 경제 시스템 분석. 역사적 상황에서 인간이 실제로 마주하는 현실 문제 다룸.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구조(시장, 혹은 사회구조, 경제조직 등)의 영향 분석
-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은? : 네트워크 정보경제를 통한 개인 역량 증가로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필요성 완화. 개인들의 비시장 활동에 기대가 크고, 네트워크에서 개인들이 발휘하는 효능성과 중심성에 주목.

전부가 걸려있다: 디지털 환경의 제도적 생태를 둘러싼 전투

- 네트워크 정보경제가 개방적이며 다양한 자유주의적 평형을 위해 발전하려면 기존 시장주체들과 자원 사용 관행과의 치열한 전투가 필요.
- 정보생산과 교환에 관련된 자원을 어느정도까지 공유재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? 재산권 규칙에 묶여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비시장의 영역으로 가져올까? (브로드밴드, 저작권 등)
- 경제적, 사회적 힘 간의 겨루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자유롭고, 평등하고, 생산적인 인류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려한 정책 선택이 필요함.

제 1부. 네트워크 정보경제 (pp.48~55)

- 매스미디어 모델: 자본집약적, 상업적 전문 생산자의 정보> 장거리 대량배포 시스템> 수동적 소비자
- 인터넷: 정보, 지식, 문화의 생산과 배포에 필요한 자본구조를 탈 집중화함.
- 테크놀로지는 사회적 실행을 위한 새로운 실현 가능성의 공간 열어줌.
- 매스미디어 시대 문화생산을 통제하던 집중화, 상업화의 흐름이 모두가 생산할 수 있고,

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형태로 전환

- 1부: 탈집중적 생산양식을 가능케하는 기술적, 경제적 전환 설명. 기술적 충격이 사회적, 정치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함.
- 2장: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프로젝트가 왜 탈집중화된 형태의 비시장적 생산의 양상을 보이는가 설명.

제 2장. 정보생산과 혁신의 경제학 (pp. 56~92)

- 정보가 공공재로 인식되는 이유?
  - '비경합적 재화': 생산된 이후 다음 소비자를 위한 더 이상의 사회적 자원 투자가 필요하지 않음, 한계비용이 0.
  - '거인의 어깨위' : 정보 자체가 투입과 산출이라는 생산과정 모두를 구성
- 지적재산권 보호의 확대가 오히려 지식, 문화, 정보 생산을 규제할 수도 있음. 특허권의 강화가 특허 출원수를 감소시키는 부정적 영향.

<u>현재의 정보생산 시스템에서 가능한 다양한 전략들</u>

- 이상적인 형태의 정보 생산 모델(표 2.1. p.68)

  1) 배타권 기반의 전략
  - 로맨틱 맥시마이저 모델: 권리기반 배타적 모델, 공공영역. 창작자들의 저작권 사용료 기대.
  - 미키 모델: 이미 배타권을 보유한 대규모 기업 안에서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창출하여 더 높은 이익을 얻음
  - RCA 모델: 정보자원을 보유한 소유자들 사이의 교환. 특허 풀, 크로스 라이센싱, 시장분할 협정과 같은 소유자들의 그룹화를 통한 독점지대 형성

  2) 비배타적 시장 모델
  - 학자적 변호사 모델: 정보생산으로 이익을 얻지만 배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전략. 정보에 대한 접근이 아닌 저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에 요금을 부과. 정보에 대한 수요 측면의 효과.
  - 노우하우 모델: 정보생산의 공급 측면의 효과. 기업의 연구수행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제품 제작 등
  - 학습네트워크 모델: 투자 회수를 위해 배타권을 행사하지 않으나 기술흡수능력이 좋은 소수 기업에게 정보접근권을 판매하여 투자 회수.
  - ex) IBM의 프리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한 이익 창출

  3) 비배타적 비시장적 모델
  - 조 아인슈타인 모델: 정보를 무료로 배포하고 명예, 가치 등 정보생산자의 다양한 동기를 성취.
  - 로스앨러모스 모델: 국가 기밀 연구소처럼 정보생산 결과물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아도 공적 자금을 계속 지원 받음.

- 제한적 네트워크 모델: 학회 동료 등 제한된 네트워크 안에서 정보를 공유. 카피레프트 운동. 호혜성의 조건

배타권의 영향력

- 강력한 배타적 권리가 정보생산에 합당한 보상을 줄까? - 배타권은 투자를 유발하지만 투입비용 증가> 정보 생산 증가분보다 투입비용 증가분이 크면 규제의 변화는 혁신을 저해한다.
- 배타권이 강해지면 정보생산모델의 이익실현전략이 단순해짐, 다양성 소멸. 전유적 권리가 커지고 시장기반의 배타권 기반 비즈니스 전략 선호하게 됨

정보생산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만날때

- 음악산업의 사례: 19세기 관계적 상품> 축음기 발명으로 생산자와 수동적 소비자 분리> 음악산업화: 학자적 변호사, 조 아인스타인 모델에서 시작하여 로맨틱 맥시마이저, 미키 모델에 의존>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하여 탈 집중화, 관계기반의 시장 재 형성
- 정보와 문화의 생산에 투입되는 세가지 요소: 1)현존하는 정보와 문화, 2)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기계적 수단, 3)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
- 물적 자본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된다면 창조적 인류는 더 자유롭게 넓은 범주의 정보, 문화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
- 또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“연결된 인간의 마음”에서 생산되는 자산들은 무언가를 창조하고,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와 공유된 문화적 경험이 합쳐진 결과물.
- 따라서 정보재와 지식은 유형재 생산을 위한 자본주의 경제 보다는 비시장 기반의 생산시스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.

디지털 환경에 존재하는 강력한 배타권들

- 현존하는 배타권 기반 제도(영리기업 최적화)와 새롭게 등장하는 네트워크 경제와의 충돌
- 정보, 지식, 문화에 대한 협력적 공유와 비시장적 생산의 사회적 실행이 자유주의 국가의 자유와 정의를 한층 진전시킬 것.